

요양병원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자기주장성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김지아¹, 강영실^{2*}

¹경남대학교 간호학과, ²경상대학교 간호대학/경상대학교 건강과학연구원

Effects of Moral Sensitivity and Self-Assertiveness on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of Nurses Working in Long Term Care Hospitals

Ji-Ah Kim¹, Young-Sil Kang^{2*}

¹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 상관관계,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도에 소재한 6개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49명으로, 자료수집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시행하였으며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및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평균 4.94점, 자기주장성 정도는 평균 3.17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는 평균 3.49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장성 정도는 도덕적 고뇌 경험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에서는 직위와 윤리적 교육 경험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도덕적 민감성($r=.382$, $p<.001$)과 자기주장성($r=.224$,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도덕적 민감성과 윤리적 교육 경험 여부, 자기주장성임을 확인하였고,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5.0%였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교육을 통한 도덕적 민감성과 자기주장성을 함께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moral sensitivity, self-assertiveness,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their correlation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mong nurses working in a long-term care hospital. Overall, 149 nurses working in a long-term care hospital in G Province were evaluated. The date was collected from November 30 2019 to December 18, 2019 and analyzed using SPSS/WIN 21.0 program. The mean of moral sensitivity among nurses was 4.94, the mean of self-assertiveness was 3.17 and the mean of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was 3.49. The self-assertiveness wil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xperienced moral distres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ccording to social positions and experience of ethical education.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moral sensitivity ($r=.382$, $p<.001$) and self-assertiveness ($r=.224$, $p<.01$).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were moral sensitivity, self-assertiveness and ethical education during nursing practice, which explained 25.0% of variance in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Therefore, to improve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of nurses,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hat improve moral sensitivity and self-assertiveness by promoting ethical education.

Keywords : Moral Sensitivity, Self-Assertiveness,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Ethical Education, Nurses

*Corresponding Author : Young-Sil Kang(Gyeongsang National Univ.)

email: kangys@gnu.ac.kr

Received February 28, 2020

Accepted June 5, 2020

Revised April 6, 2020

Published June 30,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된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 의 사회 진출 등으로 독거노인의 증가 및 가족의 간병 기능 약화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가정에서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와 요양 등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노인의 증가는 요양병원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고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열악한 운영 및 노인 권익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관리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에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요양병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질 향상 방안으로 병원 인증평가 및 적정성 평가 도입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 70% 이상이 뇌혈관질환 후유증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3]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 증상으로 나타나는데[4] 이러한 행동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문제행동 관리 측면에서 요양병원에서는 신체 보호대나 정신 약물요법 등 환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윤리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5].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특히 이런 윤리적인 간호 상황이 초래되었을 때 그 상황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나[6] 민감성이 부족한 사람은 도덕적 상황으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도덕적 무관심, 무감각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7].

도덕적 민감성은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대상자들의 도덕적 갈등이나 문제를 인식하고 대상자에게 최선의 결과로 이끌기 위해 갈등적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여 파악하는 능력이다[8].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윤리적, 전문기적 책무로서 노인의 인권과 존엄성 존중에 특별한 의무를 져야 할 뿐 아니라 도덕적 행동의 근간이 되는 민감성을 확보해야 하며 여러 가지 의료상황에서 간호 수행 시 이를 바탕으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9].

여러 가지 임상 상황에 따른 간호사의 의사결정은 환자를 옹호하는 전문직 간호사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10], 특히 요양병원 대상자들은 환자 특성상 간호사나 간병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환자들을 위한 결정이 윤리적일 수 있도록 의사결정 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10].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 가지는 자신감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시 중요한 지표가 되며 자신감이 높을수록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10], 요양병원 환자 특성상 환자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간호 수행 중 환자의 권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직원을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윤리적 상황을 묵인하거나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상황의 반복으로 인해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도덕적 고뇌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와 함께 일하는 간호 보조 인력들은 보통 간호사보다 나이가 많고 간호사와의 사적인 친밀성이 있기 때문에[11] 업무 중 환자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학대나 방임과 같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리적인 간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권익을 옹호하지 못하고 동료의 행동에 묵인이나 무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5]. 간호사는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중 묵인이나 무관심이 아닌 간호사 자신의 윤리적 소신과 신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비윤리적 간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5].

자기주장(self-assertiveness)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고 현재의 갈등을 인정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행동이며 현대 간호사들에게 자기 표현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12]. 자기 주장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괴롭힘이나 성희롱과 같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의 자기주장적 표현의 정도, 의사와 간호사 간의 협업 관계 등의 임상적 업무에서의 자기주장과의 관계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13-15] 요양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간호 상황에서 간호사의 적극적 개입과 대처를 위한 자기주장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들이 윤리적 간호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환자를 위한 결정이 윤리적일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에 따라 자신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로는 중소 및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로 윤리의식과의 관계[16], 인성과 도덕적 민감성

및 간호 전문직 관과의 관계[17],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가치관과의 관계[1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민감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과의 관계[19], 윤리교육과 전문직 자아개념 및 윤리적 딜레마와의 관계[20], 간호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과의 관계[21] 등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자기주장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수준을 확인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인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는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의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연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연구의 절차, 참여자의 익명성, 자료의 비밀 보장 및 연구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직접 설명하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할 것을 수락

하면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자료의 기밀 유지를 위해 연구 참여 동의서 및 설문지를 표식이 없는 봉투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회수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G도에 소재한 6개의 요양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201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게 한 뒤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G power program(3.1 version)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05, 효과크기.15, 검정력.95로 표본산출을 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는 146명으로, 회수율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결과 총 157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8부를 제외하고 149부를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은 Lutzen 등[22]의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MSQ)를 Han 등[23]이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한국판 도구(Korean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K-MSQ)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Scale 7점 척도로 5개의 하부영역을 포함한다. 환자 중심 간호영역 5문항, 전문적 책임 영역 7문항, 갈등영역 5문항, 도덕적 의미영역 5문항, 선행영역 5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함'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84이었다.

2.4.2 자기주장성

본 연구에서는 Rathus[24]가 개발한 자기주장 도구(Rathus assertiveness schedule)를 Ha 등[25]이 번안하고, Lee & Son[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장의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7개의 부정문항에 대한 응

답은 역 환산하였다. Lee & Son[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83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79이었다.

2.4.3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측정도구는 Sulmasy등[26]이 개발한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elf-efficacy) scale (PECS)도구를 Laabs[27]가 수정·보완하고, Kim[10]이 번역하여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9개 문항

으로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86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80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 Differences of Moral Sensitivity, Self-assertiveness,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oral sensitivity		Self-assertiveness		Ethical confidence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Gender	Male	6(4.0)	5.08±0.59	0.65 (.517)	3.13±0.28	-.32 (.751)	3.26±0.40	-1.31 (.193)
	Female	143(96.0)	4.93±0.55		3.18±0.32		3.47±0.44	
Age(years)	<30	17(11.4)	4.79±0.51	1.65 (.181)	3.26±0.31	1.19 (.315)	3.35±0.44	2.16 (.095)
	30~39	40(26.8)	4.90±0.39		3.20±0.35		3.41±0.42	
	40~49	57(38.3)	4.90±0.54		3.17±0.34		3.44±0.43	
	≥50	35(23.5)	5.11±0.72		3.10±0.23		3.62±0.43	
Marital status	Single	26(17.4)	4.81±0.50	1.25 (.290)	3.21±0.32	0.61 (.546)	3.37±0.40	2.64 (.075)
	Married	121(81.3)	4.97±0.56		3.16±0.32		3.52±0.44	
	Divorce	2(1.3)	4.61±0.97		3.37±0.28		3.00±0.00	
Total of nursing experience (years)	<1	6(4.0)	4.58±0.58	1.48 (.222)	3.23±0.29	0.91 (.437)	3.50±0.62	1.04 (.377)
	≤1~<5	21(14.1)	5.03±0.58		3.24±0.30		3.37±0.42	
	≤5~<10	35(23.5)	4.84±0.58		3.11±0.30		3.43±0.38	
	≥10	87(58.4)	4.97±0.53		3.18±0.33		3.53±0.44	
Nursing experience in long term hospital (years)	<1	25(16.8)	4.95±0.51	0.23 (.875)	3.25±0.39	2.11 (.101)	3.52±0.45	0.19 (.901)
	≤1~<3	34(22.8)	5.00±0.55		3.25±0.30		3.51±0.49	
	≤3~<5	33(22.1)	4.92±0.65		3.10±0.30		3.47±0.46	
	≥5	57(38.3)	4.90±0.53		3.13±0.29		3.46±0.36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	104(69.8)	4.92±0.61	0.37 (.689)	3.18±0.33	0.47 (.625)	3.49±0.45	0.01 (.987)
	university	42(28.2)	4.99±0.42		3.14±0.29		3.49±0.39	
	Master	3(2.0)	4.78±0.29		3.30±0.42		3.44±0.22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113(75.8)	4.91±0.57	-.84 (.405)	3.15±0.30	-1.35 (.178)	3.43±0.44	-2.38 (.019*)
	≥Charge nurse	36(24.2)	5.00±0.50		3.24±0.36		3.63±0.39	
Religion	Yes	84(56.4)	4.94±0.58	0.03 (.974)	3.15±0.31	-1.02 (.308)	3.48±0.45	-0.25 (.800)
	No	65(43.6)	4.93±0.53		3.20±0.33		3.50±0.41	
Ethical education	Yes	66(44.3)	4.93±0.62	-0.15 (.885)	3.18±0.34	0.20 (.839)	3.59±0.42	2.80 (.006**)
	No	83(55.7)	4.94±0.50		3.17±0.30		3.40±0.43	
Experience of Moral Distress	Yes	142(95.3)	4.95±0.56	1.00 (.318)	3.16±0.32	-2.33 (.021*)	3.48±0.44	-0.34 (.736)
	No	7(4.7)	4.73±0.42		3.44±0.24		3.54±0.42	

*: p<.05, **: p<.01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143명(96.0%)이었으며, 연령은 '40~49세'가 57명(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39세'가 40명(26.8%), '50세 이상'이 35명(23.5%), '30세 미만'이 17명(11.4%)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121명(81.3%)으로 많았고, '미혼'이 26명(17.4%), '이혼'이 2명(1.3%)로 나타났으며 총 임상경력은 '10년 이상'이 87명(5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10년 미만'이 35명(23.5%), '1~5년 미만'이 21명(14.1%), '1년 미만'이 6명(4.0%)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근무경력은 '5년 이상'이 57명(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3년 미만'이 34명(22.1%), '3~5년 미만'이 33명(22.1%), '1년 미만'이 25명(16.8%)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은 '전문학사'가

104명(69.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사'가 42명(28.2%), '석사이상'이 3명(2.0%)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13명(75.8%), '책임간호사 이상'이 36명(24.2%)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있다'가 84명(56.4%), '없다'가 65명(43.6%)으로 나타났다.

도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 여부 경험은 '없다'가 83명(55.7%), '있다'가 66명(44.3%)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업무 시 도덕적 고뇌 경험 여부는 '있다'가 142명(95.3%), '없다'가 7명(4.7%)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94±0.56점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전문적 책임 영역이 5.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 중심 간호영역(5.32점), 갈등영역(4.75점), 선행영역(4.67점), 도덕적 의미영역(4.10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기주장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7±0.32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9±0.43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장성의 정도에서는 간호업무 시 도덕적 고뇌 경험 유무(F=-2.33, p=.02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간호업무 시 도덕적 고뇌 경험을 하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주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에서는 직위(F=-2.38, p=.01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간호사'보다 '책임간호사 이상'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높았으며, '윤리적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경험이 없는 간호사'보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높은

Table 2. Degree of Moral Sensitivity, Self-assertiveness,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N=149)

Variable	Subsection	Range	Min-Max	MD±SD
Moral sensitivity	Patient-oriented care	1~7	2-7	5.32±0.71
	Professional responsibility	1~7	2-7	5.58±0.74
	Conflict	1~7	1-7	4.75±0.91
	Moral meaning	1~7	1-7	4.10±1.01
	Benevolence	1~7	2-7	4.67±0.61
	Total	1~7	1-7	4.94±0.56
Self-assertiveness		1~5	1-5	3.17±0.32
Ethical confidence		1~5	1-5	3.49±0.43

Table 3. Correlation of Moral Sensitivity, Self-assertiveness,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N=149)

Variables	Moral sensitivity r(p)	Self-assertiveness r(p)	Ethical confidence r(p)
Moral sensitivity	1		
Self-assertiveness	.098(.237)	1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382(<.001)	.224(.005)	1

Table 4. Factors Affecting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N=149)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49	.42		3.60	<.001
Current position	.136	.073	.135	1.85	.066
Ethical education	-.189	.063	-.218	-3.01	.003**
Moral sensitivity	.280	.057	.359	4.95	<.001***
Self-assertiveness	.231	.099	.170	2.33	.021*

Durbin-Watson=1.96, F=12.02, p<.000, R²=.250, Adj-R²=.229

*: p<.05, **: p<.01, ***: p<.001

것(F=2.80, p=.006)으로 나타났다[Table 1].

3.3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의 관계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도덕적 민감성(r=.382,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주장성(r=.224, p=.005)과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과 자기주장성(r=.098, p=.237)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 중 직위, 도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 이수 경험과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 총 4개 변수를 투입하였다.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 값과 분산팽창지수(VIF)를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 값은 0.979~0.995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005~1.021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분석결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윤리적 교육 경험유무(β =-.218, p<.01), 도덕적 민감성(β =.359, p<.001), 자기주장성(β =.170, p<.05)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25.0%였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를 파악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94점이었으며,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im의 연구[17]에서는 4.74점, 정신과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의 연구[28]에서는 5.19점,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 Kang의 연구[5]에서는 4.82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부영역 중 환자 중심영역과 전문적 책임 영역의 민감성이 가장 높았으며 도덕적 의미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다른 선행연구[5, 17, 28]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요양병원 특성상 대상자들이 윤리적인 간호상황에 자

주 노출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은 전문직 책임 의식과 인간존중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도덕적 의미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윤리교육과 훈련으로 도덕적 민감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29]에서 제안된 것과 같이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의미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병원 차원에서의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의 차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직위가 높고, 임상경험이 많을수록, 윤리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5, 13, 28]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고 직위가 높을수록, 업무 중 도덕적 고뇌를 경험한 간호사일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대상자의 편의추출 제한성과 본 연구 대상자인 요양병원 간호사와 종합 병원 및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근무 조건이나 환경의 차이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연구대상자의 자기주장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7점으로 보통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 Sohn[15]의 연구에서 3.20점, Park & Park[13]의 연구에서 3.10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정신과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Yoon[30]의 연구에서의 3.12점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호사들은 직무상 타인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는 경향은 잘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야 하는 의사소통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아서[31]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무 환경 특성상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여러 직종의 동료들과 함께 대상자를 돌보는 업무 중에 환자의 의견이 침해되고 자율성이 위배되는 윤리적인 상황이 관찰되어졌을 때 묵인이나 무관심이 아닌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장성 정도와의 차이에서는 업무 중 도덕적 고뇌를 경험해보지 못한 간호사들이 자기주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윤리적인 간호상황에서의 자기주장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사와의 협업 관계에서의 자기주장성을 연구한 Lee & Sohn[15]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역량이 높거나 직무에 만족하는 간호사가 자기주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

과 건강한 의사소통 관계에서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자기주장을 통해 더 효율적인 업무향상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다르게 도덕적 고뇌를 경험한 간호사가 자기주장성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간병사나 또는 다른 동료에 의해서 환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인권과 관련된 행위를 이유 없이 지속하거나, 치매 환자에게 폭언이나 고압적인 태도와 같은 부정적인 관행을 알고 있지만, 동료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꺼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묵인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며[5] 이런 경험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자기주장성이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9점이었으며,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im의 연구[17]에서 3.46점, Jeon 등의 연구[18]에서 3.47점, Kim의 연구[10]에서 3.40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요양병원의 다양한 윤리적인 간호상황에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취약한 상황을 상황적,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환자를 위한 의사결정이 윤리적이 될 수 있도록[22]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와의 차이에서는 일반 간호사보다 책임간호사 이상에서 높았으며, 윤리적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교육 경험이 없는 간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인 Kim[10]의 연구에서 연령, 교육 수준, 결혼상태, 근무경력, 직위, 윤리교육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간호 실무에 대한 전문성과 숙련성이 높기 때문에[10] 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며,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간호윤리교육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므로[29]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을 체계화하고, 특히 요양병원에서는 윤리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윤리교육경험이 적은 근무경력이 적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일방향적인 이론위주의 주입식 윤리교육보다는 임상현장에서의 다양한 윤리적 사례들을 제시하고 상황에 맞는 윤리적 기준이나 지침을 반복적으로 연습해보거나, 간호윤리 상황극을 적용해봄으로써[29] 환자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의사결정시 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도덕적 민감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주장성과도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도덕적 민감성 간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Lim[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며,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자기주장성간의 연구는 보고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 분석은 어렵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임상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간호사는 민감하게 인지하고 반응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이 윤리적일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의사 결정하기 때문에 여겨지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대로 자기주장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신감이 기본적으로 내재 되어서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윤리적 교육 경험 유무,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이었고 이들 변수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대한 설명력은 25.0%였다. 이 중 도덕적 민감성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Lim[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윤리교육의 중요성은 간호사가 되기 이전인 이미 간호대학에서부터 교과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 하고 있지만, 교육 효과의 지속성이 부족하며[32], 또 요양병원은 일반병원들과는 다른 환자과 환경적 특성으로 환자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임상 상황에 관한 사례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윤리적 대처 및 지침에 대한 프로토콜이 반영된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전 직원의 필수교육으로 지정하는 병원 조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간호사 자신은 도덕적 민감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환자의 비윤리적인 인권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환자를 위한 결정이 윤리적일 수 있도록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적합한 윤리교육 프로토콜 개발 시 실제 임상 사례와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적용하는 전략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

결정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으며,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도덕적 민감성과 자기주장성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윤리적 교육 경험 유무, 도덕적 민감성, 자기주장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간호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반응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이 윤리적일 수 있도록 의사결정 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동료와의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자신의 윤리적 신념을 소신대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윤리 교육 및 전략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자기주장성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 시도된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G도 지역의 일부 요양병원 간호사를 편의 표집으로 조사한 점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추후 여러 지역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요양병원에서의 윤리적인 임상사례를 개발하여 표준화된 대응법 마련을 위한 간호사 윤리지침과 관련된 프로토콜 개발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Y. M. Lee,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Job Stress and Person-centered Care in Geriatric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0, No.5, pp.2635-2647, Oct. 2018.
- [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ternet]. Survey on Elderly Human Rights in long term care Hospital, 2011 [cited 2015 Feb 27]. Available from: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4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B%85%B8%EC%9D%B8%EC%9A%94%EC%96%91%EB%B3%91%EC%9B%90&page_size=10&boardtypeid=16&boardid=610491 (accessed Nov. 22, 2019)
- [3]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nternet]. Press release. Results of Evaluation of Long Term Care Hospitals, 2011[cited 2011 Sep 30] Available from: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8197> (accessed Nov. 15, 2019)

- [4] J. J. Oh, "The Experience of Nursing Staff on the Dementia Patients'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0, No.2, pp.293-306, 2000. DOI: <https://doi.org/10.4040/jkan.2000.30.2.293>
- [5] J. A. Kim, Y. S. Kang, "Moral Di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f Nurses Working in Long 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6, pp.240-251,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6.240>
- [6] K. Lutzen, C. Nordin, "Structuring Moral Meaning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7, No.3, pp.175-180, 1993. DOI: <https://doi.org/10.1111/j.1471-6712.1993.tb00196.x>
- [7] J. H. Song, Moral insensibility. [Internet]. The Seoul Economy; 2015 [cited 2015 Dec 4]. Available from: <http://www.sedaily.com/NewsView/1JKOFYFZWf> (accessed Nov. 20, 2019)
- [8] A. Jameton, "Dilemmas of Moral Distress: Moral Responsibility and Nursing Practice", AWHONN's Clinical Issues in Perinatal & Women's Health Nursing, Vol.4, No.4, pp.542-551, 1993.
- [9] K. K. Kim, "The Nurse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n the Older Adult's Dignity in Nursing Home",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Vol.15, No.1, pp.81-90, 2009.
- [10] C. H. Kim, "The relationships among ethical dilemma, professional values, ethical confidence of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Daejeon, pp.3, 25, 2014.
- [11] S. E. Park, E. Y. Yeom, "Experience of the Role Conflict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7, pp.368-381, 2016. DOI: <http://doi.org/10.5392/JKCA.2016.16.07.368>
- [12] K. S. Bang, H. J. Park, "Correlation of Assertiveness and Depression in Clinical Nurses", *Journal og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4, No.2, pp.93-102, Aug 2008.
- [13] M. Y. Park, W. J. Park, "Effects of Moral Sensitivity and Self-Assertiveness of Hospital Nurses in a Community on Awareness of Sexual Harrassment", *Journal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Vol.10, No.4, pp.318-328, December 2016. DOI: <http://doi.org/10.20297/jsci.2016.10.4.318>
- [14] E. S. Lee, H. S. Kang,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Gender Role Stereotype, Sexual Assertiveness, Sexual Assault Recognition,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 in Dating",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0, No.1, pp.48-56, 2014. DOI: <http://doi.org/10.14370/jewnr.2014.20.1.48>
- [15] S. M. Lee, S. K. Sohn, "Relationship between Assertiveness and Attitudes towar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1, No.2, pp.156-164, 2015. DOI: <http://doi.org/10.14370/jewnr.2015.21.2.156>
- [16] M. O. Jang, K. H. Chung, "A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Biomedical Ethics on Their Confidence in Ethical Decision-Mak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1, pp.743-755, 2019. DOI: <http://doi.org/10.35873/ajmahs.2019.9.11.067>
- [17] M. H. Lim, "Converged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in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6, pp.75-84, 2017.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6.075>
- [18] Y. H. Jeon, K. I. Jung, H. S. Song, E. S. Na, "Factors Influencing Ethical Confidence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3, pp.501-512,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3.501>
- [19] M .H. Lim, "Effects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9, pp.610-618, 2016. DOI: <http://doi.org/10.5762/KAIS.2016.17.9.610>
- [20] S. Y. Bang, "The Effects of Ethics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 Concept,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 pp.568-576, Jan.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1.568>
- [21] M. Jung, "The Ethical Leadership of Nurse Managers and Their Effects on the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of Nurs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Vol.19, No.1, pp.74-86, March, 2016. DOI: <https://doi.org/10.35301/ksme.2016.19.1.74>
- [22] K. Lutzen, M .Evertzon, C. Nordin, "Moral Sensitivity in Psychiatric Practice", *Journal of Nursing Ethics*, Vol.4, No.6, pp.472-482, 1997. DOI: <https://doi.org/10.1177/096973309700400604>
- [23] S. S. Han, J. H. Kim, Y. S .Kim, S. H. Ahn,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Journal of Nursing Ethics*, Vol.17, No.1, pp.99-105, 2010. DOI: <https://doi.org/10.1177/0969733009349993>
- [24] S. A. Rathus, "A 30-item schedule for assessing assertive behavior", *Behavior Therapy*, Vol.4, No.3, pp.398-406, 1973.
- [25] Y .S. Ha, S. H. Kim, C. S. Moon, S. H. Suk, J. R. Yoon, M. J. Lee, "The 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for aggressive or passive undergraduates", *Journal of Kyungbuk University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16, No.1, pp.1-50, 1983.
- [26] D. P. Sulmasy, G. Geller, D. M. Levine, R. Faden,

"Medical House Officers' Knowledge, Attitude, and Confidence Regarding Medical Ethics", *Journal of Clinical Ethics, Archieve of Internal Medicine*, Vol.150, No.12, pp.2509-2513, 1990.

- [27] C. A. Laabs, "Confidence and knowledge regarding ethics among advanced practice nurse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33, No.1, pp.10-14, 2012.
- [28] H. K. Cho, "Moral Sensitivity, Empathy and Perceived Ethical Climate of Psychiatric Nurses Working in the National Ment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6, No.2, pp. 201-215, 2017.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2.204>
- [29] M. A. Kim, "Two Teaching Methods to Improve Nursing Students' Moral Intelligence,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ement: Theatre of Situations and Pro-Con Debate", *Journal of Korean Medical Ethics*, Vol.16, No.3, pp.376-390, 2013.
DOI: <https://doi.org/10.35301/ksme.2013.16.3.376>
- [30] Y. K. Yoon,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violence experience, assertiveness and burnout of nurses working in psychiatric war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pp.35, 2010.
- [31] A. K. Lee, J. Y. Yeo, S. W. ung, & S. S. Byun, "Relations on Communication Competence, Job-stress and Job-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12, pp.299-308, 2013.
DOI: <http://doi.org/10.5392/JKCA.2013.13.12.299>
- [32] Y. S. Kim, J. W. Park, G. S. Bang, "A study on the Persistence of Nursing Ethics Education for Nurses' Ethic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7, No.2, pp.253-263, 2001.

강 영 실(Young-Sil Ka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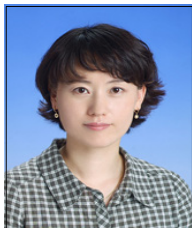
- 1981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00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1986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2020년 현재 : 경상대학교 건강과학연구원

<관심분야>

노인간호, 지역사회간호, 건강증진

김 지 아(Ji-Ah kim)

[정회원]



- 2016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0년 2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수료)
- 2018년 9월 ~ 현재 :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간호윤리교육